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5. 30.(월) 11:00	배포 일시	2022. 5. 30.(월) 11: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문영기 (044-203-2752)

공예의 기원 '땅'을 주제로 밀라노에서 한국공예 선보인다

- 6. 7.~12.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 개최, 작가 22명 참여, 100여 점 전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이탈리아 '2022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인 6월 7일(화)부터 12일(일)까지 펠트리넬리(Fondazione Feltrinelli)에서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시, 땅의 기초로부터(Again, From The Earth's Foundation)'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 위기 속에서 땅의 소산물을 재료로 삼는 공예의 가치와 자연 존중의 미학을 조망할 계획이다. 공예전의 예술감독은 보이드플래닝 강신재 대표가 맡는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 60주년, '밀라노 한국공예전' 10주년 기념 한-이탈리아 작가 협업 진행

특히 올해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60주년이자, '밀라노 한국공예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문화융합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작가 3명을 포함해 양국 작가 총 22명이 참여한 금속과 섬유, 목, 유리, 한지 등 작품 총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세계적인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 미켈레 데 루키(Michele De Lucchi), 마리오 트리마르키(Mario Trimarchi), 프란체스코 파신(Francesco Faccin) 등 3명과 한국 전통 공예 장인 박강용 옻칠장, 이형근 유기장, 허성자 완초장 이수자 등 3명이 협업한 작품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전시 공간은 ‘땅’의 기초에서 공예가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예술감독의 철학을 담아 ‘땅’, ‘하늘’, ‘태양’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이고 원초적인 대지로 구현했다.

공예전은 밀라노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푸오리살로네 누리집(https://www.fuorisalone.it)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6월부터는 공진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예전을 소개하는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계기로 2013년에 처음 문을 연 ‘한국공예전’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공예전을 통해 우수한 한국 공예작품들을 널리 알리고 한국미의 정수로 세계 시선을 사로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 전시 개요
2. 강신재 예술감독 약력
3. 한-이탈리아 협업작가 약력
4. 전시 공간 설명(펠트리넬리)
5. 푸오리살로네 게시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2022년 밀라노 한국공예전 전시개요

□ 전시개요

○ 추진배경 : 세계 최대 규모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 개최를 통한 한국공예 인지도 제고

○ 전시기간 및 장소

- (오프라인) '22. 6. 7.(화) ~ 6. 12.(일), 6일간 / 펠트리넬리 1층-500㎡/150평
- (온라인) '22년 5월부터 ~ / 푸오리살로네(fuorisalone)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kcdf 공식 인스타그램(@kcdfglobal) 등

○ 전시주제 : **다시, 땅의 기초로부터(Again, from the earth's foundation)**

○ 전시내용 : 계속되는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에서 땅의 소산물 자체를 재료로 삼는 공예의 가치와 자연 존중의 미학을 조망하는 전시

○ 전시구성 : **한-이 참여작가 총 22명, 100여 점 출품** ※ 한-이 협업작품 제작 3팀

○ 작가별 전시작품 대표 이미지

미켈레 데 루키 ×박강용/류남권	마리오 트리마르키 ×이형근/이지호	프란체스코 파신 ×허성자	김태연	김계옥
김혜정	이규홍	정재나	류은정	강석근
이상민	강승철	정다혜	정현지	이능호
		-	-	-
엄윤나	윤정희			

○ 전시장 참고 이미지

- 공간 키워드 : ‘땅’, ‘하늘’, ‘태양’에 기초한 초자연적이고 원초적인 대지를 표현, 땅의 기초에서 공예는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간다.

붙임 2 2022년 밀라노 한국공예전 예술감독 약력

강 신 재(보이드플래닝 소장)

건국대 실내디자인 학과와 중앙대 실내건축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다.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부와 건축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최희영 대표와 함께 1997년에 디자인 그룹 보이드플래닝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한불 수교 130주년 주빈국으로 초대받았던 2015년 파리 헤벨라시옹 공예 아트페어 한국관, 2017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밀라노 트리엔날레 한국관의 공간 디자인을 담당했다. 또한 이탈리아 에이닷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해외 유수 어워드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붙임 3 한-이탈리아 협업작가 약력

□ 미켈레 데 루키(Michele De Lucchi) × 박강용 & 류남권

미켈레 데 루키(Michele De Luc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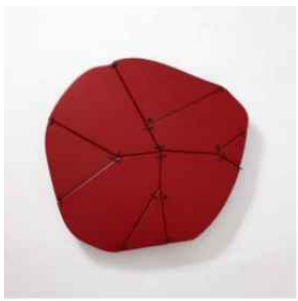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와 더불어 이탈리아 디자인계를 이끌었던 리더 가운데 한 명으로, 건축·디자인·공예 등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세계적인 예술가이다.

특히, 그가 디자인한 톨로메오(Tolomeo) 램프는 1987년부터 아르떼미데(Artemide)에서 생산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램프로 기록되었으며, 이탈리아 및 유럽의 유명기업들과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했다. 인본주의 건축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종합스튜디오 <AMDL CIRCLE>의 창립자이자 멤버로 활동했으며, 첨단지식을 결합한 미래 공유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3호 옻칠장 박강용

전통 옻칠공예를 비롯하여 현대적 재료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옻칠 작업을 하고 있다. 2003년 전라북도공예품대전 은상, 2005년 한국옻칠공예대전 금상, 2020년 문화재청장상 '명공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남원시 옻칠공예관 관장을 맡아 지역 공예 발전에 힘쓰고 있다.

작품사진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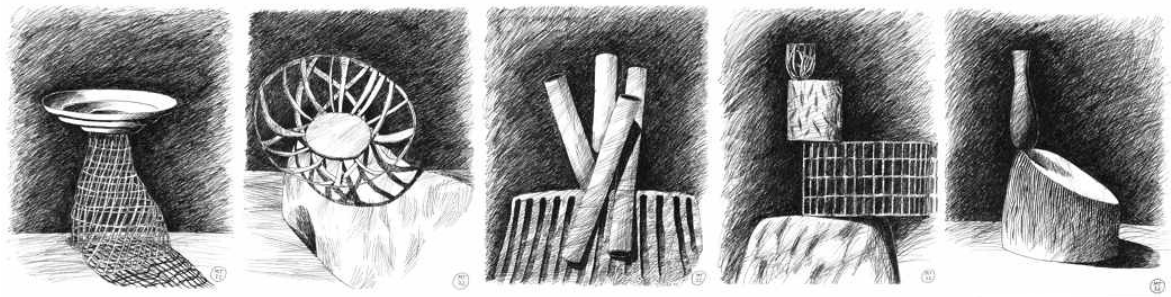
미켈레 데 루키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연의 본질에 입각한 순수한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삼았다. 그는 하나하나의 건축적 요소들이 모여 입체적인 건축물이 탄생 되는 것처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바느질 기법'에 초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옷은 바느질을 사용한 건축'이라 말하며 작은 유니트들을 새로 조합하고 결합하여 하나의 입체적인 월 오브제로 탄생시켰으며 이번 작품은 그런 그의 건축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마리오 트리마르키(Mario Trimarchi) × 이형근 & 이지호

마리오 트리마르키(Mario Trimarchi)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이다. 도무스 아카데미(Domus Academy), 올리베티(Olivetti) 디자인스튜디오의 디렉터로 활동한 이후, 디자인회사 <FRAGILE>을 설립하여 알레시(Alessi), 아르떼미데(Artemide), 페라가모(Ferragamo),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 등 많은 유명한 기업 브랜드와 협업해 왔다. 그 외 알레시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했으며 대표적으로 그가 디자인 한 커피메이커 오시디아나(Ossidiana)로 콤파스(Compasso) 상을 수상했다. 현재 밀라노 나바((NABA) 디자인 대학교와 시칠리아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젊은 디자이너들을 양성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이형근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이형근은 대한민국 전통 금속공예기법인 방짜유기 기법을 40년 넘게 이어오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디자이너, 젊은 작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방짜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대한민국 주요 고궁과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사진



기획의도
마리오 트리마르키는 디자이너이자 건축가로 황동을 소재로 한 다수의 오브제를 작업해 왔다. 그는 이번 밀라노 한국공예전의 전시 주제를 접하고 '모든 쉽게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현대사회'에 초점을 두어 사물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도 '신에게 제물을 받치듯 긴 노고와 공을 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오르고, 받치고, 드높인다는 의미를 산을 오르는 험난하고 다양한 과정(노고)의 형태로 풀어내었으며, 위에 올려진 각각의 오브제들은 각각 과실, 향, 꽃, 불, 눈물의 제단을 형상화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기의 물성과 소재에 대해 다시 한번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 프란체스코 파신(Francesco Faccin) × 허성자

프란체스코 파신(Francesco Facchin)
이탈리아 디자인의 전설 엔조마리(Enzo Mari)의 어시스턴트로 업계에 입문하여 AMDL(미켈레 데 루키가 운영하는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한 바 있다.
현재는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 많은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탈리아 볼차노대학 및 해외 여러 대학에서 제품 디자인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유명 디자인갤러리 로사나 올란디(Rossana Orlandi), 닐루파(Nilufar),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NGO와 같은 국제 클라이언트와 정기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초장 이수자 허성자
완초장 이수자 허성자는 이상재 완초장에게 기법을 전수받았다. 2011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중소기업청장, 2019년 인천시공예품대전 대상, 2019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장려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9년,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 디자인 협업사업과 전승공예품 인증제 사업을 진행했다. 공예트렌드페어, 프랑스 메종 오브제 등 국내외 여러 전시에 참여했고 2021년 '예올이 뽑은 올해의 장인'에 선정되었다.

작품사진

기획의도
프란체스코 파신은 평소 세계 여러 각국의 '머리 짐(머리에 짐을 지는 문화)'에 관심이 많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도 머리에 짐을 지는 문화가 있었고 스페인, 네팔, 멕시코를 비롯한 유럽 각국과 이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한국과의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갓'을 디자인 모티브로 직접 제안하였으며, 그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오브제로 탄생시켰다. 결합되었을 때는 갓 본연의 기능을, 분리되었을 때는 바구니(트레이)의 기능을 주어 익숙한 형태에서 오는 새로운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 밖에 그가 제작한 의자 및 조명에 각기 다른 왕골의 짜임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붙임 4 전시 공간 설명

□ 펠트리넬리(Fondazione Feltrinelli)

○ 공간정의 : 펠트리넬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현대적 건축물로 밀라노 중심구인 브레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밀라노디자인위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

○ 대관규모 : 펠트리넬리 1층(한국식 2층)-500㎡/150평

○ 공간특징

-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메인 구역인 **브레라 구역에 위치**(올해 170여 곳의 장외전시 개최 예정)
- 구·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랜드마크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
- 펠트리넬리 재단(미디어출판사)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매년 Cassina(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가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으나, 작년부터 상업적 전시를 지양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비영리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시기간 동안 1층 단독대관(한국식 2층)으로 윈도우 존, 리셉션 스크린 등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본전시 홍보 예정

△ 전시공간 전경

바로가기 : https://fondazionefeltrinelli.it/la-fondazione/la-nuova-sede/#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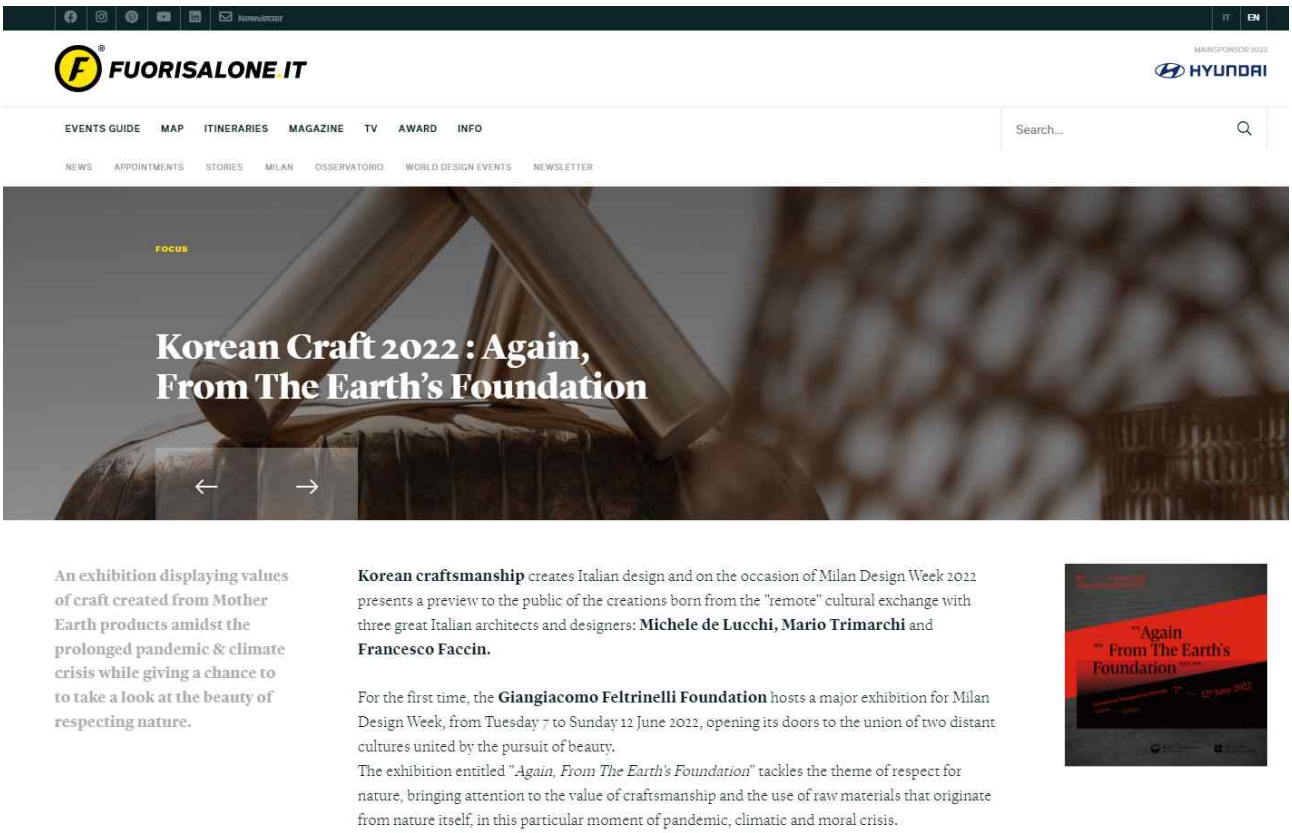
붙임 5 푸오리살로네 게시 현황

□ 내용 및 방식

○ 주요 콘텐츠 : 전시 소개글, 주요 작품 사진, 영상(메인, 티저, 콜라보 인터뷰 영상 등) 등

○ 노출방식 : **채널 및 콘텐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홍보 예정**

구분	채널설명	참고링크
Event Guide	전시정보를 총망라하는 전체 소개 페이지로, 나머지 탭들과 링크되는 메인 페이지	https://www.fuorisalone.it/en/2022/events/1821/Again-From-The-Earths-Foundation
Milan Design Week 2022 map	공진원 개최 장소 지도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521개, 브레라 구역에 170여 개 장외 전시 등록완료	https://www.fuorisalone.it/en/2022/events/map
Magazine	주최측(푸오리살로네)에서 작성한 홍보 기사로 지난 5/3 현지 기자간담회 당시 배포됨	https://www.fuorisalone.it/en/magazine/focus/article/910/korean-craft-2022-again-from-earths-foundation



푸오리살로네 참고 이미지